

 국토교통부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시	2021. 8. 9.(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혁신행정 담당관실	담당 자	• 과장 소성환, 사무관 손정석, 주무관 이석유 - ☎ (044) 201-3213, 3216, 3218
보 도 일 시		2020년 8월 1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9.(월) 15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민신뢰 회복 위한 투명·공정시스템 구축 「국토교통부-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」 9일 개최

### - 간담회 논의결과 토대로 8월말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 수립키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8월 9일(월) 14:00,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조직혁신 방안(21.7월 발표)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,
  - 우수한 혁신과제를 참고하여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거나 타 기관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여, 8월 최종적으로 산하기관 별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#### <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: '21. 8. 9. (월) 14:00~15:00 /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
- 참석자
  - (국토부) 장관, 국토도시·주택토지·교통물류·항공정책실장, 건설·도로·철도국장
  - (공공기관) 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LH, 도로공사, 철도공사, 부동산원, 주택도시보증공사, JDC, SR, 국가철도공단, 교통안전공단, 국토안전관리원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 국토정보공사, 건설기계안전관리원, 새만금개발공사 등 16개 기관
- 주요 의제: 공공기관별 혁신방안,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 성과 공유

□ 먼저,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.

○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동기임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

- 이 가운데,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

-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\*은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하여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\*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부동산원, 주택도시보증공사,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, 한국철도공단, 한국국토정보공사

- 그 밖에도,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.

- 또한, 생활 목적의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\*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였다.

\*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강화(공무원 수준으로 강화), 전관특혜 관행 근절(퇴직자 사적접촉 금지, 수의계약 제한),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개편 등

○ 아울러, 유튜브,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, 챗봇-인공지능(AI) 기반의 행정정보 상담체계를 구축하며,

- ESG\*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.

\* 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, 사회,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

□ 다음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기관\*에서 시범사업 중인 ‘모범거래 모델’ 도입 성과\*\*를 함께 공유하고

\*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

\*\* (인천국제공항공사) 여객 급감을 반영한 임대료 산정 체계 개선으로 공항 사용료 감면 및 유예(1.2조), 적정대가 지급(원가 산정시 평균가격 적용) 등 (한국철도공사) 코레일 특 내 승차권 변경기능을 추가하여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, 일반열차 지연보상을 고속철도 수준으로 개선(40분→20분) 등

○ 공사비 부당 감액,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‘갑질’,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.

□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“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,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”고 강조하면서

○ “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 혁신과제가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, 간담회 논의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8월말까지 제출받고, 기관별 조직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손정석 사무관(☎ 044-201-32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